

2021년도 주요업무계획

2021. 1.



국립고궁박물관
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

목 차

I.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	1
II.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	6
III.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	7
1. 왕실문화 콘텐츠 구성 및 보존관리 고도화	8
2. 국민 체감형 왕실문화 향유 서비스 제공	11
3. 왕실문화재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	14
IV.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	16
V. 주요 현안	17
[참고] 일반현황	18

I.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

1 2020년 주요 정책성과

가.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언택트 서비스 확대

□ 코로나 선제적 대응으로 관람객 안전 확보 및 박물관 미래비전 수립

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

- * QR코드 도입, 방문객 발열 체크, 회의실 칸막이 설치, 관람객 거리두기 유도 등
- *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관람객을 시간대별로 분산 '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' 준수

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방향 제시

- * 디지털 뉴딜로 만드는 친절한 박물관,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박물관 등 4개 전략과제 수립 및 미래비전 선포(개관 15주년 기념 행사(8.13.))
- * 국립고궁박물관 전시·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미래비전 실행 세부화(12월)

□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비대면 관람·교육 확대

● 온라인 교육 신규 개발로 대면 교육 완전 대체

- * 어린이·청소년·가족·성인·학급단체 대상별 18종, 415회 운영. 7,506명 참여
- * 교육영상 및 활동지 유튜브·누리집에 공개(영상 3종 제작, 조회수 6,797명)
- * 학급단체 교육신청 85회(3,210명) 중 64회(2,602명)이 서울 이외 지역 학교로 기존 교육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

● 다양한 전시 영상콘텐츠 제공

- * 누리집에 '온라인 전시관' 신설, 테마전(2종), 특별전(11종), 상설전(6종) 콘텐츠 제공
- * 통제구역인 수장고 내부 모습과 소장품 관리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(국·영문, 3종)을 제작하여 유튜브 공개(8월)
- * 유튜브, 언론사(동아닷컴, 연합뉴스), 포털사이트(다음)와 협업으로 영상콘텐츠 서비스 채널 다양화



교육 영상



온라인 전시관



온라인 사전예약제



미래비전 선포(8.13.)

나.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박물관 서비스 제공

□ 이용자 중심의 관람 환경 개선

● 무장애공간 조성 및 휴게공간 개선

- * 전시동 진입부 장애인·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 신규설치(11월)
- * 1층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, 외부 선크공간 환경 개선(12월)



전시동 진입부 승강기 설치



유휴공간 휴게공간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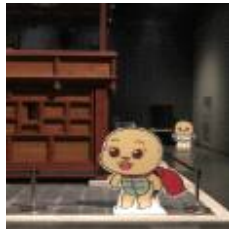
선크공간 개선

● 전시안내서비스 품질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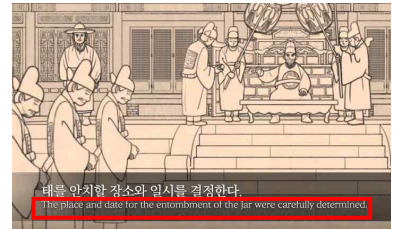
- * 수어해설 영상 60종 공개 운영(온라인(유튜브), 박물관 안내 단말기 무료 제공)
- * 어린이 음성안내기 시범운영(5~10월 / 366건 이용 cf. 일반안내기 361건)
- * 상설전시실 영상 및 유물카드 영문 설명 추가(대한제국 등 5개실, 12월 완료)
- * 안내브로슈어 및 리플릿 개편(가독성 높은 디자인,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)



수어해설 영상



어린이 음성안내 캐릭터



전시영상 영문 자막 추가

●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왕실유물 정보 제공

- * 소장품 사진 홈페이지 무료 개방, ('19)826건→('20)910건 예정(전년 대비 10% 증가)
 - ☞ 소장품 사진 다운로드수 : 115,384건('16~'20)
- * 포털사이트 소장품 DB 구축(다음 백과 누적 5,692건, 네이버 누적 1,045점 공개)
- *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포털(e뮤지엄) '20년 신규 업로드 총 3,847점(누적 11,434점 공개)

● 조사연구 콘텐츠 대국민 공개

- * 「이충무공전서」 등 조선왕조도서 40종 96책 이미지 DB 구축, 홈페이지 공개(환수도서 150종 1,205책 중 136종 955책(79%) 진행)
 - ☞ 소장품 사진 조회수 : 65,985건('17~'20)
- * 소장품도록 「조선왕실의 현판 I」, 고문헌 국역총서 「국역 황단증수의(皇壇增修儀)」, 「왕실문화도감 제5권-무구」 등 발간

다. 다양하고 흥미로운 왕실문화 콘텐츠 제공

□ 사회적 관심을 모은 새로운 전시 기획

- 청 황실의 대표적인 유물로 외국 왕실문화를 소개한 특별전과 서구문물 도입에 따른 조선왕실의 문화 변화상을 조명한 특별전 모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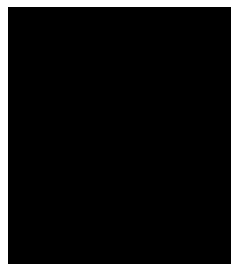
- * ‘청 황실의 아침, 심양’(19. 12월~20. 3월): 다수의 중국의 국보급 유물이 출품되었으며, 조선 후기 많은 영향을 끼친 청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공.
- * ‘新왕실도자,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’(20.8월~11월): 다수의 미공개 유물 출품과 서구문물로 인한 왕실문화 변화상이라는 주제를 다룸. 박물관 특별전 중 최고점의 전시만족도(95.2점. 기존 최고점 93.3점)와 가장 많은 언론보도(총88건)

- 새로운 시각의 제시, 시의성 있는 기획 전시로 풍부한 볼거리 제공

- * ‘숙종대왕 호시절에’(20.5월~7월)로 숙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
- * 국외 환수유물(‘대군주보·효종어보’(2월), ‘양부일구’(11월) 등)에 대한 신속한 특별공개전시로 국민들의 관심 충족
- * 6·25전쟁 70주년 기념전시 <현종어보> 등 공개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(6·25전쟁과 문화유산 보존, 6. 19.)



‘청황실의 아침, 심양’



‘新왕실도자’



‘숙종대왕 호시절에’



6·25전쟁 학술대회

□ 소통과 참여를 통한 박물관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

-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, 뉴스레터 등 온라인·모바일 홍보 강화

- * SNS 운영 현황 : 총 5개(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네이버블로그)
- * 뉴스레터를 통해 월별 박물관 주요 소식 홍보(약 49,700여 명 구독, ‘19년 대비 10%향상)

-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연중 운영

- * 열린 수장고 운영 및 체험 견학 프로그램 시행(총11회, 114명 참가)
- * 온라인 홍보 프로모션 운영(「유퀴즈 온더 고박!」 등 7회)

라. 나눔과 함께를 통한 연구결과와 전문역량의 실용화

□ 대외 협력을 통한 문화 콘텐츠 및 상품 개발

- 화협옹주묘 출토 유물 관련 전통 화장품 제작 및 전통 화장문화 콘텐츠 개발·활용
 - * 시제품 공개 및 업무협약식(한국전통문화대학교, 코스맥스(주), 9.22.), MBC 언론보도 등 37건
 - * 청화백자 용기 및 캐릭터 디자인출원 13건 및 상표출원 2건 완료(9.21.), 전통 화장품 특허 2건 및 상품제작('21. 상반기 예정)
- 대표적인 전시품을 주제로 한 문화상품 개발
 - * '신^新 왕실도자' 전시 유물(살라미나 화병) 활용 찾잔 상품개발완료(8월)
 - * <사각유리등>을 주제로 문화상품 제작(디자인출원), 박물관 야외조명등과 가로등 설치 완료(12월)

□ 문화재 보존 전문역량 지원·활용서비스 강화

- 대국민 문화재 관리 지원
 - * 「대국민 문화재 훈증소독 서비스」로 훈증소독 및 관리물품 제공(6-11월/13건 301점)
- 왕실문화재 보존기술 콘텐츠 활용 및 보존처리 지원
 - * 왕실문화재 가죽 재질 규명 및 정보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(한국의류시험연구원, 6.29)
 - * 궁능 현장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(덕수궁 소장 중화전 용상 곡병, 석조전 서양식 가구 등 8건 8점)
 - * 독일 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기증 갑옷(면피갑)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 실시
 - * 종묘제기 '작(爵)' 복제(12월, 249점) 및 '신축진찬도 병풍(辛丑進饌圖屏風)' 복제(11월, 1점)



청화백자 용기



전시유물 상품 개발



훈증소독 실시



석조전 서양식 가구 보존처리

□ **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에 선제·종합적 대응방안 적극 실행 필요**

- 코로나 19로 현장 관람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, 전시 개최 기간 조정 및 콘텐츠 다양화로 관람 기회 확대 고려
- 안내해설사·자원봉사자의 대면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,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비대면 해설 강화 필요

□ **왕실문화 콘텐츠 향유 계층 다양화를 위한 노력 필요**

- 문화재의 대중화와 다양한 문화산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원활한 공급과 판매 방법 강구
-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지방 거주 국민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보완 필요
- 국민들이 보고 싶고, 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 필요

□ **왕실문화 전문 기관으로서 관련지식 생산·제공·교류 필요**

- 국민적 관심, 전시·복제·실용화 등 대국민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물 조사·연구, 정보 공유
- 전시·보존 분야의 축적된 전문역량이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·협력 필요
- 산발적·단기적 업무 추진을 지양하고,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사연구 및 보존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

II.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

□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^{new normal} 으로 안정적 전환

< 정책 환경 >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 소비 방식은 비대면 문화소비 요구 증가
- 박물관 휴·개관의 반복으로 안정적인 관람 기회 제공이 어려워짐

-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, 로봇해설사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적극 개발
- 충분한 관람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전 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조정

□ 전문연구성과의 대중화 노력 및 박물관 서비스 영역 확대

< 정책 환경 >

-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소비하는 것으로 향유의 개념 확대
- 문화향유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박물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강화

-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통해 문화재 새로운 활용 가치 창출
-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지방 거주 국민을 위한 박물관 서비스 확대
- 지정문화재 전시, 지역사회 연계 교육, 지역특색을 살리는 경관 개선 사업 등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분야 적극 발굴

□ 수요자 중심 콘텐츠 연구·공개 및 국내외 교류·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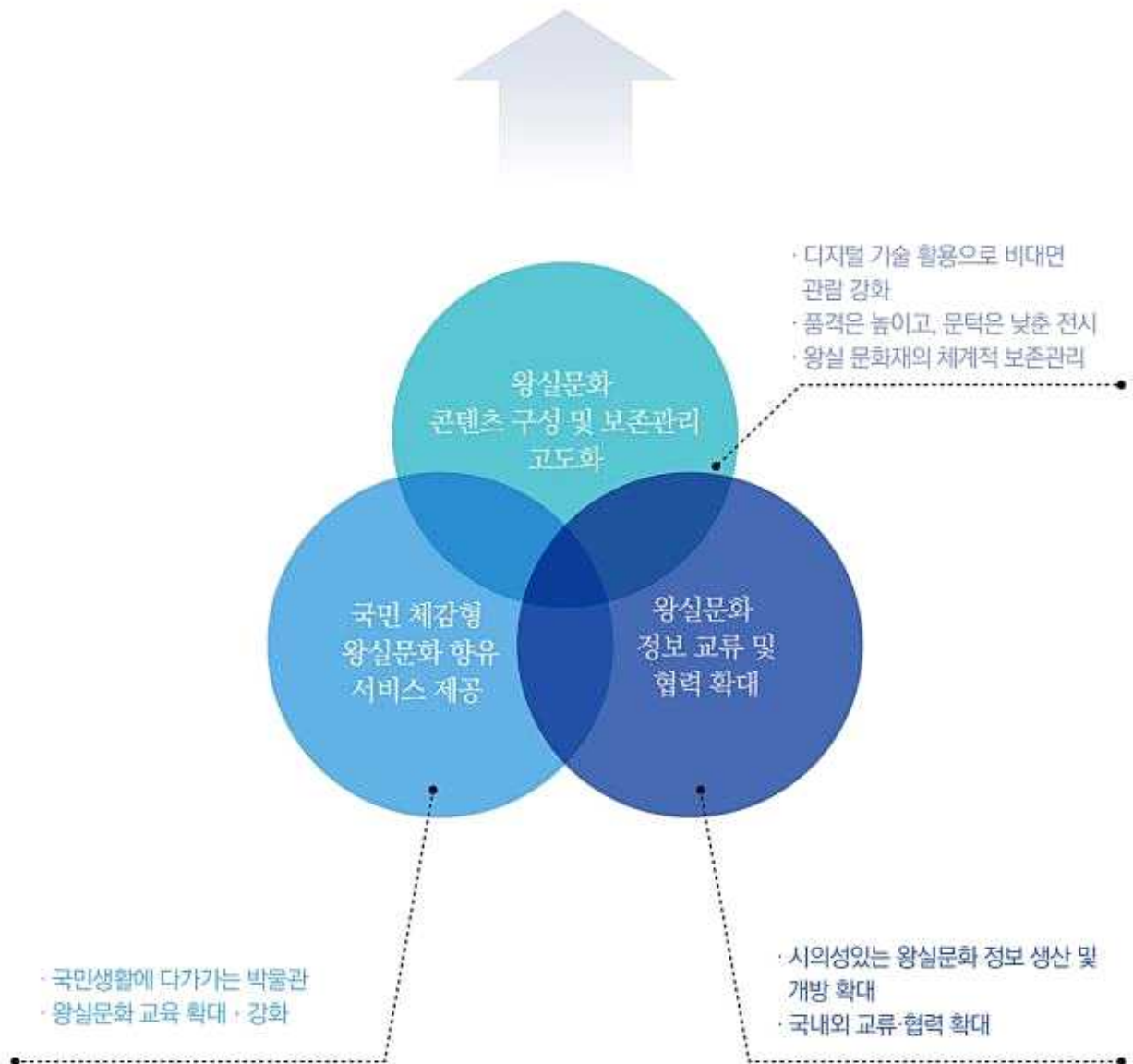
< 정책 환경 >

- 박물관이 축적한 지식의 적극 개방 필요
-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교류 활동 강화로 왕실문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

- 왕실문화 콘텐츠 수요자 중심 조사연구 실시 및 소장품 콘텐츠 개방 확대
- 전세계 왕실문화 교류, 신북방 국가 및 지역박물관 지원 등 국내외 협력 강화
- 왕실문화재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보존 및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

Ⅲ.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로 '문화로 행복한 삶' 구현



1

왕실문화 콘텐츠 구성 및 보존관리 고도화

1

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비대면 관람 강화

□ 온라인으로 마음껏 누리는 박물관

- 직접 관람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
 - 상설전(7개실) VR 구축 완료, 각 실별 대표 전시유물 360° 3D입체 촬영물 제작, 누리집(온라인전시관), 유튜브 등에서 상시 제공
 - 박물관 전시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을 비대면 콘텐츠로 제작·제공
 -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(자막, 외국어 해설 등) 제공
- 전시와 비대면 전시의 합일화
 - * 특별전(궁중에 피어난 꽃 모란, 7월): VR 1종, 해설 1종, 짧은 영상 10건
 - * 테마전(경복궁 발굴 30주년 전시, 12월): VR 1종, 해설 1종, 짧은 영상 5건
 - * 특별 공개전(국외소재한국문화재 보존처리지원 완료): 해설을 담은 영상 1건
 - * 상설전(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, '21. 2월~'22. 1월): 총 12건

□ 상설전시실 안내와 방역 도우미 로봇해설사 운영

● 인공 지능 기반 전시안내와 방역 로봇 운영

-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뿐 아니라, 방역기능을 탑재해 손소독제 제공,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박물관 내 방역 보조까지 가능
- 전시 안내(동선)와 대표유물 (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100선 중 전시유물 위주)소개, 관람객 방역 기능 보조
- 운영대수: 총3대(층별 1대)



- * 로봇해설사 제작·콘텐츠 개발(1~2분기), 인공지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(3분기), 개선점 보완(3분기), 정상운영(4분기)

□ 품격 높은 특별전과 더욱 친절해진 상설전

- (왕실문화와 모란) 왕실행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'꽃 중의 왕'이라고 불리는 모란장식을 통하여 조선왕실 문화를 품격 있게 조명

* 기간: 2021. 7월~11월(120일) / 기존 특별전(70~90일) 보다 대폭 늘려 관람 기회 확대

* 전시유물: <모란도병풍>, <복온공주 활옷> 등 모란 관련 왕실문화재 다수

- (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) 전시 중장기계획(20년 수립) 공개로 관람객, 유물소장자(처)에게 사전에 전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그간 특별전 공간 부족으로 잠식되었던 상설전시실(조선궁궐실) 개편

□ 경북궁 조명 테마전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

- (경복궁 발굴 30주년) 학술발굴 30주년(1981년 시작)을 기념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(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)와 테마전을 공동 개최해 발굴의미 및 보존·복원 역사 소개

* 전시기간/장소: 2021. 12월~2022. 2월 / 기획전시실

* 전시유물: 경북궁을 포함해 궁궐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, 보존·복원 자료

- (현장과 연계 해설 프로그램 운영) 경북궁 입장객이 다수인 우리 박물관 관람객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, 현재 경북궁 내 발굴현장을 안내하는 현장프로그램을 궁능유적본부(경복궁관리소)와 공동 운영

* 현장연계 해설 프로그램 운영: 전시 기간 중 매주 1회 / 예약·현장접수 병행

□ 신규 지정문화재 주도적 공개전시 기반 마련

- 신규 지정 또는 등록되는 동산문화재 중 ① 개인 소장으로 개인이 전시하기 어려운 유물 ② 왕실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유물 ③ 국민적 관심이 커서 즉시 공개가 필요한 유물 위주로 지정 주체인 문화재청 소속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박물관의 역할 증대(22년 개최)

* 유형문화재과와 긴밀한 협의로 22년 개최 준비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

3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

□ 소장품의 안정적 관리 및 보안 강화

● 구입을 통한 왕실(황실) 문화재 신규 확보

- 공고를 통한 정기 구입 및 경매 응찰, 수시 구입 등을 통해 조사 연구 및 전시 활용 가치가 높은 왕실(황실) 문화재 적극 수집
- * 원활한 상설 전시 운영을 위해 부족한 궁중회화 및 어제·어필 유물 집중 수집

● 소장품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

- 소장품 이동시 RFID 태그 인식을 통한 반출입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

추진계획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(완료)
설치장소	지하수장고 주출입구	1·2 수장고	운영관리/ 개선사항분석	3·4 수장고	5·17·18 수장고

※ 2020년 자체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(수장고 5개소 설치)

□ 왕실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

●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체계적 보존처리

- 수장고 소장품 전수조사 및 상태진단 실시 병행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
- 궁중현판 보존처리 중장기계획('20~'24년)에 따른 보존처리 실시
- * '경운궁 현판' 등 50여점 보존처리(표면 칠·안료 안정화 및 구조 보강)

● (기관특화사업) 왕실 가죽문화재 제작기술 및 재료 분석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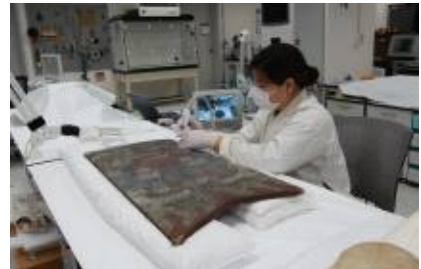
- 가죽문화재 재질 규명을 위한 분석 공동연구(한국의류시험연구원)
- * '호갑' 등 비파괴분석 방법론 공동연구(소장 가죽문화재 20여점 분석)



수장고 소장품 반출입시스템



현판(보존처리 전)



가죽문화재(방패) 표면분석

2 국민 체감형 왕실문화 향유 서비스 제공

1 국민생활에 다가가는 박물관

□ 연구성과의 콘텐츠 산업화

● 전통화장품 제작 및 전통 화장문화 콘텐츠 개발(계속)

- 화협옹주묘 출토 화장품 재현 및 관련용품 개발을 통한 왕실문화재 콘텐츠 산업화

- 립밤, 핸드크림 등 제품 출시 및 화장품 용기 특허 등록(10건)

* 국립고궁박물관, 전통문화대학교, 코스맥스(주) MOU 체결 및 전통화장품 시제품 출시('20)

● 궁중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

- 궁궐에서 직접 사용한 물건이라는 특색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·공급

* 2021년 특별전 '궁중에 피어난 꽃, 모란' 개최와 연계 진행. 대상유물 선정(2월),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(3월~5월), 상품 개발·제공(6월)

□ 국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재 서비스 제공

● 지역사회(종로구 등) 가로등에 왕실문화 디자인 입히기

- 경복궁과 창덕궁, 창경궁이 위치한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궁궐 주변과 연계 도로 가로등을 '사각유리등 모티브 가로등'으로 교체 추진

* 종로구를 우선 추진하되, 다른 지역 협업 경우 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

<예시: 가로등>



● **대국민 문화재 훈증소독 서비스 실시(계속)**

- 개인 소장 문화재의 생물 피해 방지를 위한 훈증소독 서비스
- 방충방제용 약품 등 지원 및 소장자 대상 개별 교육서비스 제공

● **인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 설치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 홍보**

-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한국의 특색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 미디어를 이용하여 한국문화 홍보

* '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편 앤티러에 사업 추진(67억원), '21년은 미설치 구간 중 일부에 전시영상 LED 등 추가 설치(13억원) 예정

□ **이용자 중심 관람 환경 개선**

● **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공간(BF, Barrier Free) 조성 추진**

- BF 인증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 * 공사시행 : '22~'23(10억원)

● **박물관 경관 개선 및 시설 홍보 추진**

- 박물관 전면 계단 등 진입부 경관 개선 추진
- 박물관 홍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추진

● **관람객과 유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**

- 박물관 내 노후배관 등 설비 유지보수 공사 실시
- 화재발생 시 유물 보호 및 관람객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소방 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1단계 사업 시행

* 소방설비 확충공사(2~3단계) : '22~'23(6억원)

2

왕실문화 교육 확대 · 강화

□ 비대면 교육 서비스 강화

● 온라인 교육의 적극적인 활용

- 대면교육의 대체수단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개설
· 운영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박물관 교육 서비스 확대
- 다양한 교육 연계 온라인 이벤트 개최, 지방 교육청 및 학교 대상 교육안내
공문 발송 등 홍보 강화로 교육 참여자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
- 대면 ·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되, 대면교육 중단 시 언제
든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대응 체제 마련

* '21년 박물관 교육 총 35여종 개설 · 운영 (대면 · 비대면 교육 병행, 신규 5종 개발)

● 원활한 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

-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 조성 및 고궁배움터 내 방음공사 추진



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



SNS 홍보



온라인 교육 스튜디오

□ 왕실문화재 교육지원 확대

●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지원 연계

- 박물관 유물과 교과과정 연계 교재, 유치아동 대상 체험 교재 등
학교일선 또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문화유산을 학습하고 활용
할 수 있는 디지털 교재 제작 추진

● 시각 장애인 대상 교육도구 개발

- 천상열차분야지도(국보 제228호) 등 시각장애인 대상 IT 교보재
개발 추진
- 교육생이 만지면 반응과 더불어 음성 설명이 지원되는 방식으로,
대면 · 비대면교육 모두에 활용 가능

3 왕실문화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

1 시의성 있는 왕실문화 정보 생산 및 개방 확대

□ 조사연구 내용 및 수준의 실효성 제고

● 국민이 공감하는 연구주제 개발

- 대한제국 어차, 주요 왕실 회화 및 공예품 제작, 대한제국기 왕실 상징물 등 다양한 주제 개발·연구
- 궁중현판 제자리 찾기 타당성 분석
 - * 궁중현판 보존처리 중장기계획에 따라 궁능 전각별 현판 현황 조사

● 전문자료 구축으로 조사연구 품질 향상

- 조선왕조 궁중현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성과 축적
 - * 소장품 도록 『조선왕실의 현판Ⅱ』 발간
- 조선왕조 어보관련 국역서 금보개조도감의궤(金寶改造都監儀軌) 발간
- 왕실문화 전문 KCI 등재후보학술지 『고궁문화』 제14호 발간

□ 소장품 콘텐츠 개방 확대

● 왕실문화 전문 콘텐츠 공개

- 조선왕조·대한제국 시기 사진자료 DB 구축(신규사업)
 - * 소장 황실 관련 사진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를 위한 조사·정리 및 시스템 구축
 - * (연도별 조사 계획안) 도서 150여점('21), 사진·엽서류 430여점('22), 대한 매일신보 등 860여점('23), 시스템구축('24)
- 『동문선』 등 조선왕실 소장 기록유산 기초자료 구축(환수도서 5종 201책)
 - * '21년 주요 환수도서 기초자료 구축 완료 추진
- '10~'20년도 발간 『왕실문화도감』 (총 5권) 수록 일러스트 파일을 누리집에 공개(신규사업)

● 소장품 조사연구 정보 대폭 개방

- '21년 도자류 등 1,001건 개방 예정 ('20년 : 910건, '15~'21년 7,200여 건)
 - * '22년 소장품 정보 전수공개 추진 검토

□ 우리 박물관 최초의 국외 교류전시 개최

● 한-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전시

- 벨기에 소재 한국문화재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, 교류 특별전 개최

* 기간/장소 : 2021. 9월/국립고궁박물관 / 11월/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

* 전시유물 : 벨기에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지원 유물(8점), 한-벨기에 외교문서(10여건) 등

● 중국심양고궁박물관 교류전시

- 우리 관 개최 '청 황실의 아침, 심양' 특별전('19)에 이어, 중국에서 우리 관 소장유물 교류전 개최

* 전시기간/장소: 2021. 9월~11월 / 중국 심양고궁박물관 전시실

* 전시유물: <일월오봉도병풍> 등 우리 소장품 100건 내외

□ 왕실문화재 보존 국내외 기술교류 기반 확대

● 보존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

- <근대기록물(양지^{洋紙}) 보존 전문가 국제 워크숍> 공동개최(9월)

* 박물관 - 캐나다 도서관·기록보관서(LAC, Library and Archives Canada)

- 19차 국제박물관협의회 보존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성과발표(5월)

● 민관협업 공동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

- <가죽문화재 보존연구 학술심포지엄> (가제) 개최(5월)

* 우리 관 - 한국의류시험연구원

● 지역과 함께하는 박물관 만들기

- 지역사회 내 소규모 박물관·미술관 역량강화 지원

* 박물관 및 미술관이 밀집한 종로구 내 소규모 사립박물관 대상

* 종로구 수요에 따른 수장고 환경 모니터링 등 컨설팅

IV.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

□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에 준비된 박물관

- 특별전 기간 조정, 온라인 교육 확대 등으로 관람과 교육의 기회 확대
- 로봇해설사 운영으로 비대면 해설서비스 기회도 확대
-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실어 조선궁중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 마련

□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

- 지역박물관 보존역량 강화 지원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
-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지역 내 가로등을 디자인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

□ 한국 문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박물관

- 우리 박물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최초의 국외 전시(중국 심양)와 한국과 벨기에 120주년 기념 전시를 통해,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및 한국 문화 이미지 제고에 기여

□ 왕실문화정보를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제공하는 박물관

- 적극적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형태의 왕실문화재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, 자유로운 활용



소장품 사진 자료 개방 건수('16~'21, 누적)



<면복 착용 모습>



<항룡가>

왕실문화도감 일러스트 파일 홈페이지 공개

V. 주요 현안

박물관 전시공간 및 수장고 고도화를 위한 종합 정비

□ 추진배경

- 개관 이후 소장품 대폭 증가('05년 36,325점→'21년 71,800여 점)로 수장고 공간 확보와 전시공간 고도화를 위한 종합정비 필요

□ 추진방향

○ 청사 종합정비계획 수립

- 박물관 청사 리모델링으로 전시·교육 기능 강화 및 전시공간 확대

- 총사업비 : 약 31,600백만원 (30,000㎡×100만원)
- 사업기간 : 총 5개년, ('22) 박물관종합정비 기본용역시행(100백만원), ('23) 박물관 증·개축 실시설계용역(1,500백만원), ('24~'26) 박물관 증·개축 공사시행(30,000백만원)

○ 제2수장고 신설 추진

- (위치)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631 일원(기재부 비축토지)
- (규모) 연면적 6,000㎡(수장고 3,000㎡, 보존실 1,000㎡ 대지 30,000㎡)
- (사업비) 300억원 (설계비 14, 공사비 262, 감리 및 부대비 24)
- (내용) 수장고 내부 공사, 유물수장대 및 보존처리 기자재 설치

□ 기대효과

- (박물관 전시공간 확대) 기존 사무공간(약 6,500㎡)을 현 고궁박물관 별관부지로 신축 이전을 통한 박물관 전시공간 확대
- (적극적인 왕실문화재 확충) 구입, 기증·기탁 활성화와 더불어 궁·능 잔존유물(종묘 가구류 등)과 궁·능 출토유물(문화재연구소 소장)의 이관으로 왕실 관련 유물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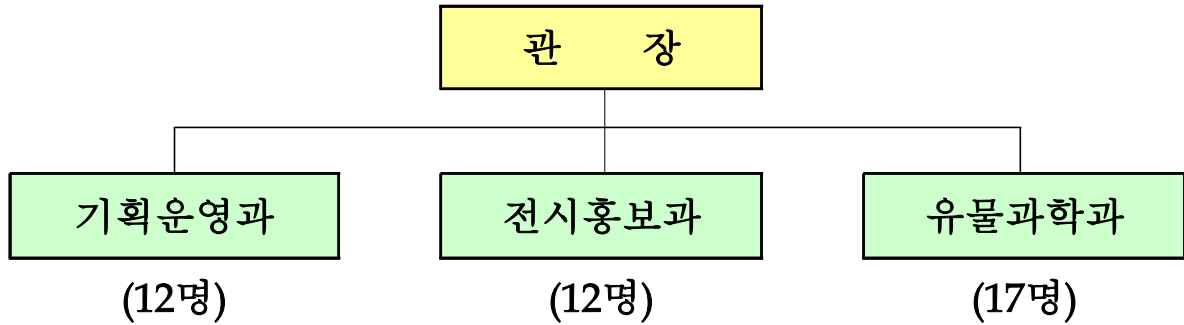
* 기존 수장고는 전시 및 열람 등 활용률이 높고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 격납, 제2수장고는 대형 유물 격납, 대형 유물 보존처리 공간으로 운영

□ 향후계획

- (청사정비계획) '21년 예산 확보, '22년부터 사업시행
- (제2수장고) '21년 기재부 비축토지 신청, '22년 예산 확보

1. 기구 및 인원

가. 조 직: 3과



나. 인 원: 정원 41명 / 현원 41명

(2020.12.31. 기준, 단위: 명)

부서명	구분	계	고 위 공무원	연구관 4급	4·5급	5급	연구관 5급	6급	연구사 6·7급	7급 이하
계	정원	41	1	2	1	3	5	3	18	8
	현원	41	1	2	1	3	5	3	18	8
기획운영과	정원	12	1	-	1	2	-	2	-	6
	현원	12	1	-	1	2	-	2	-	6
전시홍보과	정원	12	-	1	-	1	2	1	6	1
	현원	12	-	1	-	1	2	-	6	2
유물과학과	정원	17	-	1	-	-	3	-	12	1
	현원	17	-	1	-	-	3	1	12	-
비 고	○ 공무원 등 : 101명(청원경찰 3명, 공무원 83명, 기간제 4명, 촉탁직 13명)									

2.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2021예산안	2020예산	증△감	
				%
합 계	14,939	18,197	△3,908	△17.9
□ 기본경비	235	249	△14	△5.6
○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(총액인건비)	125	122	3	2.5
○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	110	127	△17	△13.4
□ 사업비	14,704	17,948	△3,244	△18.1
○ 국립고궁박물관 운영	14,704	17,948	△3,244	△18.1

3. 시설 현황

- 규 모 : 지상 2층, 지하 1층 연면적 29,665㎡
- 주요시설
 - 박물관 본관(18,346㎡): 상설전시실 7실, 기획전시실 3실, 수장고 2실, 사무실 등
 - 지하 수장고(6,946㎡, 16개실), 종합기계실(2,629㎡), 별관(1,744㎡)

4. 유물 현황

(2020.12.31. 기준, 단위: 점)

국가지정문화재				등록 문화재	시·도 지정 문화재	비지정 문화재	합계	비고
국보	보물	국가민속 문화재	소계					
82	160	333	575	869	2	70,544	71,990	

※ 기탁: 국보 1점, 보물 6점, 국가민속문화재 1점, 시도지정문화재 1점

5. 관람객 현황

(2020.12.31. 기준, 단위: 점)

구 분	관람인원			비 고
	계	내국인	외국인	
2019년	1,118,081	906,372	211,709	
2020년	161,642	141,936	19,706	코로나19로 인한 휴관 (휴관 총 205일)